

이우환의 사인: 회화작품 시리즈를 중심으로 한 해석학적 관점에서 본 특성

Lee UFan's Signature: The Characteristics from The Analytical Perspective on The Painting Series

정종효¹

Jong Hyo Cheong¹

요 약

작품에서 사인의 중요성은 미술사적 맥락의 정립을 위한 분석적 자료의 기능을 한다는 것과 작품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라는 점에 있다. 작품의 가치와 유효성 그리고 작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므로 사인에 대한 연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중요성은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다. 본고는 한국을 대표하는 동시대 현대미술 작가 이우환의 사인에 대한 연구이며, 작품에 대한 소유권과 가치 척도를 위한 목적이 아닌 그의 회화 작품과 사인의 관계성에 대해 분석하고 특징을 해석한다. 작품은 점시리즈, 선시리즈, 조응시리즈, 대화시리즈, 바람시리즈로 구분하고 각각의 관련성과 특성을 이미지해석 방식을 통해 정리하였다. 작품의 바탕이 여백 그대로 완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인의 표현은 시각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한다. 영문 위주로 표기한 사인의 방식, 색, 위치, 서체 등이 작품 표현에 따라 어떤 관련성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 자료는 한국미술품시가감정협회의 이미지 협조, 국립미술관 소장품 이미지, 온라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조사되었다.

핵심어 : 이우환, 작가 사인,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바람과 함께, 대화

Abstract

The importance of the signature that written on works stands on 2 points. It has a function of the analytic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art historical thread and it is a criterion to evaluate value of works. Further, it is considered importantly as study about signatures and cultivation of database because it works as a crucial factor that proves value and effectiveness of works and propriety rights of artist. The study is about Korean leading contemporary modern artist Lee Ufan and it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his drawing works and the signatures, not for the propriety rights of works and a measure of value and it draws their feature. The works are distinguished to Point series, Line series, Correspondence Series, Conversation series and Wind series, and then they are organized each relation and character by analysis of image. Most of the backgrounds of works are completed with empty margin and the expression of the signatures works significantly as visual qualities. In the study, I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way of expression of works and the color, position, typeface, and method of the signature in English.

Keyword : Lee UFan, Artists' Signature, From Point, From Line, With Winds, Dialogue

¹ Busan Museum of art, Busan, Korea [Chief Curator]
e-mail : dotoriart@nate.com

Received(February 15, 2021), Review Result(1st: February 26, 2021), Accepted(March 5, 2021), Published(March 31, 2021)



© 2021 The Authors. Published by NCIS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4.0 International Licens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1. 서론

미술품의 사인(Signature)은 작가에게 또는 컬렉터와 연구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사인을 하기 시작한 것이 르네상스 시대부터라고 알려져 있고 동시대미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협동조합과 같은 길드제도에서 작가들의 상호 재능을 구별하고 예술적 가치를 축하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된 사인은 동시대의 현대미술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 의미가 변해 왔다. 사인의 중요성은 크게 미술사적 맥락의 정립이라는 측면과 미술시장에서 그 가치 평가를 위한 척도의 경우로 들 수 있다. 작가의 입장에서 소유권에 대한 중요한 의미도 있다. 사인은 작품의 가치와 유효성을 부각시키기도 하지만 감정의 판결 경우에 따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다. 작품을 시작한 시점과 작고한 시점까지 일생의 흐름 동안 다양한 사인의 유형의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작가의 의도에 의해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작업 조건이나 신체상의 컨디션 그리고 기후의 변화 등 작가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인은 의도하지 않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경우도 있다. 그래서 사인에 대한 연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중요성은 오랜 시간 중요시되어 왔다. 작품의 가치가 민감한 비판적 위험에 직면했을 때 사인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작품의 확실한 실체를 통해 작가들을 평가하고, 그들의 작품을 기록하고, 더 접근하기 쉽게 하고, 정체성을 정의함으로써 전통과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해 주기도 한다. 작가는 작품이 완성된 이후에 사인을 하는 과정에 있어 자칫 작품을 망칠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이건 작품에 사인을 하지 않은 극히 일부의 작가를 제외하면 역사상 주목할 만한 인물들은 그들의 작품에 사인을 해 왔고, 연구자들은 작가가 어떤 미술사적 의의를 담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주목하고 있다. 사인은 작가에 따라 위치, 방법, 색, 표기법 등 독특함을 가지고 있고 연구를 통해 작가의 성격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요소인 만큼 정확한 해석을 위해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이해와 해석은 단지 정신과학에만 의존된 것이 아니라 삶 자체의 한가운데에서 발견되는 기초적 사건들을 중요시하는 보편적 해석학의 핵심이고, 이는 더 명확한 우리세계의 경험으로서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니체(Friedrich Nietzsche, 1844-1900)가 텍스트 해석학을 주장 했다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는 실존 그 자체의 관계성을 중요시하는 실존철학이 공용된 ‘실존 해석학’의 이미지에 의존한다 [1]. 이번 고찰은 이우환 작가의 사인에 대한 연구 자료가 많지 않아 텍스트에 의한 해석보다 작품의 이미지를 토대로 회화작품 세계에 나타나는 정체성과 사인의 관계성에 대해 고찰하고 분석하였다. 회화작품의 시리즈별로 나타나는 특성과 관련성을 중요한 탐구 요소로 설정한다.

2. 사인의 이론적 배경

미술작품에 있어서 사인은 작가로부터 생산된 작품이 독창적임을 증명하고 유일무이함을 나타내는 표식의 의미이다. 복제가 불가능한 작품의 유일성은 그 가치를 결정짓기에 충분하며 미술작품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진품이란 진실한, 신뢰할 수 있는, 거짓되거나 모방되지 않은 것이라는 의미를 가져왔고 그것은 ‘진짜’라는 개념을 나타낸다 [2]. 최근에는 작품의 진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온라인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이 온라인 미술시장에 등장하고 대중의 미술시장 접근과 고급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3]. 작품의 완성을 알리는 방법이기도하고 더 이상의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암시적인 표현이기도 했다.

구본진(1965-)은 필적에 관한 글에서 현대예술과 비디오를 접목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백남준의 글씨에서 모서리의 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분석적이고 이성적인 작가로 분석했고, 한국의 일상을 그린 박수근작가의 러브레터의 글씨와 살아 움직이는 듯 하면서 조화로운 작품의 서명에서 한민족 고유의 성향을 내포하고 있다고 기술한바 있다. 여백을 중요시 한 동양회화의 수묵화나 채색화의 경우, 서명은 여백과 그림 내용의 균형을 고려하여 글과 서명의 크기를 정하고 알맞은 위치에 자리한다. 단원 김홍도의 경우에도 각양각색의 그림에 따라 사용된 화제와 낙관인장이 무수히 많았고 화제와 서체도 여러 가지로 구사되었다 [4]. 동양화에서 화제와 낙관의 의미는 그림의 일부로서 사인임과 동시에 작품의 일부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다.

3. 이우환의 회화 작품과 사인

3.1 회화 작품의 특징

현대미술의 장르에서 회화 작품의 특성은 재료와 기법에 따라 몇 가지 시리즈로 열거할 수 있는데 이우환의 작업은 원초적 방식과 행위가 반영된 작품들로 관계에 대한 개념을 중요시하는 본인만의 특징이 회화작품과 입체작품에서 각각 강하게 나타난다. 타자와의 관계에 대한 일방적이지 않은 상호관계의 작용과 같은 맥락에서 도입된 ‘관계성’이다. ‘그리다’라는 개념보다 사물 그 자체의 만남의 현상에서 일어나는 관계를 풀어내기 위한 작업에 집중한다. 관계성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우환 스스로는 예술가로서의 ‘중간자’라고 이야기한다. 자신은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서로 다른 문화의 중간지점에 서있다고 말한다. 미학적 개념의 관점에서도 동양에 편중되지 않고 동양 미학과 서양미학의 사이에서 융합관계를 통해 어우러지는 활동을 이어간다 [5].

이우환의 회화 작업에서 대표적 시리즈를 원초적 행위와 관련지어 해석해보자면, 인간이 그림을

그리는 행위인 굵기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과 유사하다. 원시적인 환경에서 뾰족하고 딱딱한 돌로 흙이나 나무에 자국을 내는 방식인 ‘굵다’라는 행위는 그리기의 시작이다. 굵기를 통해 흔적을 남김으로써 기록이 시작되고 굵기 방식으로 표적을 남기는 것이 행위를 통해 진화되면서 그리는 방식으로 정착되었다. 이우환 회화작업의 경우 그리는 것과 그리지 않는 것에 대한 절제된 행위는 수련된 신체의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어떤 올림의 결과를 생산한다 [6].

3.1.1 점시리즈

‘점시리즈’작업에서 흔적을 표시하면서 남기는 ‘점’은 찌르기와 유사하다. 찌르기의 행위에서 움직임이 없고 한 번의 터치 그 자체로 끝나는 행위가 연속된다. 이우환의 점의 행위는 동일한 방식이지만 그만의 특이한 점 표현의 연속성으로 인해 방향성을 제시하고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것이 특징이다. 점은 왼쪽에서 시작해 한 줄이 이루어질 때까지 붓을 담그지 않아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의 농도는 없어진다. 이러한 점의 생성과 소멸 과정이 재현된 결과를 통해 이것이 한 가지 행위의 흔적임을 알 수 있다 [7]. 약해지는 점은 끝이 아니고 무한공간으로 이동하며 무한을 의미한다.

3.1.2 선시리즈

‘선시리즈’작업은 점의 연속이라는 일반적 인식으로 접근 할 수 있을 만큼 보편적이다. 방향과 연속성 그리고 무한성은 선 작업에서도 나타난다. 선에서는 속도가 느껴진다. 선의 시작은 있으나 선의 끝이 없는 것은 점의 표현과 같은 맥락의 의미이다. 굵고 강한 선의 시작에서 공평하게 나누어지는 듯 한 선의 형상은 붓에 묻은 색이 다할 때까지 붓을 떼거나 물감을 적시지 않고 한 번의 붓놀림으로 그는다 [7]. 그러나 굵기를 다하는 순간 선은 사라진다. 캔버스의 가장자리에서 반대편 가장자리까지 한 붓에 마무리한 감각적인 선은 끝남과 동시에 무한으로 연결된다.

3.1.3 바람시리즈

‘바람시리즈’작업에서는 선과 점의 시리즈에서 나타나는 시작과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마치 바람이 피부로 와 닿는가 싶으면 다시 사라지고, 다시 스쳐 가는 바람의 기운이 때로는 뒤틀리고 때로는 잠잠해진다. 점이 꿈틀대고 선은 어지럽게 흩어지고. 마치 정적인 점과 선이 강한 외부작용으로 인해 자유로워지는 현상 같기도 하다. 확장하고 팽창하는 이우환의 작품에서 공간의 개념은 무한의 우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완전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상도 해독도 불가능한 형태로 존재한다.

그의 작품에서는 한국적, 동양적, 세계적이라는 개념의 영역을 구분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경계 또는 영역을 나누는 방식은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라고 충고한다. 작품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떠한 조건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작가와 작품 그 자체만을 중시한다. 이는 세계화를 의식하고 갈망하는 디아스포라로서 창작활동에 대한 빠있는 충언이기도 하다. 20세기에 들

어서 디아스포라의 개념은 모국이 아닌 곳에 자의적으로 이주한 대부분의 사람들도 모두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으로 정의하는 논리에 기인하면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일 수도 있다 [8].

3.2 사인의 영문 배합 방식

이우환의 회화 작품에서는 많은 여백이 존재하고, 그 여백은 동양회화에서 이야기 하는 그림의 한 부분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요소다. 이런 이유에서 이우환의 사인 방식은 여백과 작품의 내용에 따라 위치와 색이 달라지지 않고 거의 정해진 위치에 작품과 유사한 색조를 선택해 사인한다. 이러한 경향은 이우환 사인의 특징이고, 정해진 몇 가지 방식에 따라 초기 작품에서 최근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시간의 흐름에 따른 큰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초기 작을 제외한 1980년대에서 최근작에 이르기까지 작품의 변화도 크지 않고 정해진 몇 종류의 사인 방식을 작품에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우환의 회화작품 시리즈에서 연도별로 대표적인 작품의 사인을 비교하여 [그림 1]과 같이 표기법과 색의 차이를 정리하였다.

시리즈	연도	L	E	E	,	U	F	A	N	연도	사인
바람시리즈	1985									85	L. ufan 85
	1988									88	L. ufan 88
선시리즈	1976									76	L. U-FAN 76
	1983									83	L. UFAN 83
점시리즈	1976									76	L. UFAN 76
	1981									80	L. UFAN 80
조용, 대화 시리즈	1998									98	L. uFan 98
	2019									'19	L. uFan '19

[그림 1] 이우환의 주요 사인 서체 비교

[Fig. 1] Comparison of Lee UFan's Main Signature Typefa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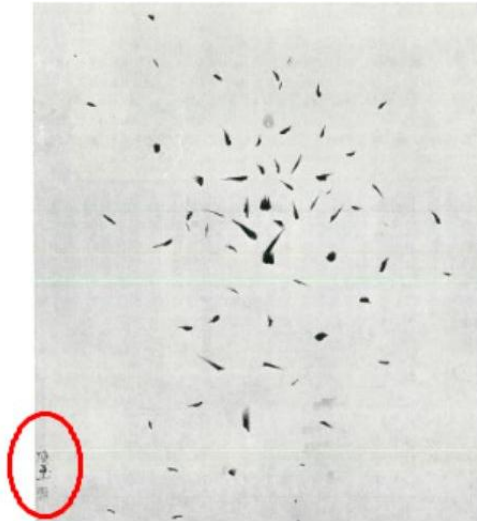
한국 작가가 사인을 할 경우는 몇 가지 표기 방식에서 선택한다. 한글 또는 영문 중에 선택하거나 한자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성과 이름을 같이 표기하는 경우, 성만 표기하거나 이름만 표기하는 경우, 호 또는 별칭을 표기하는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이중섭의 경우 한글로 이름만을 자음과 모음을 펼쳐 ‘ㅈㅓㅓㅓㅓㅓㅓ’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우환의 경우 작품에는 영문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문자 또는 소문자로 표기하는 방식은 몇 종류가 있는데, 먼저 전체

를 대문자로 표시하는 ‘L, UFAN’이 있고, 대문자와 소문자를 섞어 사용하는 ‘L, UFan’, ‘L. ufan’, 또는 이름의 첫 글자만 사용한 ‘L U F’ 등의 방식을 작품의 사인을 통해 알 수 있다.

3.3 영문 사인의 표기법

이우환의 사인은 먼저 이름의 영문표기법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한글, 한자, 영문의 표기 방식에서 한글과 한자는 그 음(Sound)과 훈(Meaning)이 각각 일치하여 표기 방법의 변화가 없다. 그러나 영문의 표기 방법은 동일한 음이라도 사람에 따라 영문 철자의 선택이 다른 경우가 있고 작가에 따라 특이하게 표기하기도 한다. 다른 작가의 예를 들자면, 작가 김창렬의 경우 ‘창’은 ‘CHANG’가 아닌 ‘TSCHANG’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적인 표현 방식이고, 작가 김환기의 ‘환’은 ‘Hwan’이 아닌 ‘Whan’을 사용하고, 작가 김종학의 경우 ‘종’은 ‘Jong’가 아닌 ‘Chong’을 사용하는 것처럼 작가에 따라 표기 방법이 다르다.

이우환은 일본 체류로 인한 이름의 표기 방식을 한국어, 영어, 일본어 세 종류로 고민했을 것이다. 한글 ‘이우환’과 한자 ‘李禹煥’의 이름은 평범한 이름이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장기적인 생활과 작가 활동을 위해 영문 표기를 한국어에 초점을 둔 영문표기법보다는 일본어에 초점을 두고 영문 표기법을 선택해 발음 또는 가독성이 좋은 방법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름 ‘이우환’에서 성 ‘이’는 두음법칙 통일 이전의 영문표기 방식인 ‘Lee’를 사용하여 보통 영문으로 표기할 때 많이 사용하는 철자법이다. 그러나 이름 ‘우환’은 ‘U Fan’으로 표기해 한국 이름 영문표기법에서 많이 보이는 ‘Woo Hwan’과는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한글 발음 ‘우’와 가까운 일본어 ‘う[*u*]'의 영문은 ‘U’로 표기 하지만 발음은 한글의 ‘우’와 ‘으’의 중간정도로 ‘Woo’와는 차이가 있다. ‘환’은 한글 표기법에서 첫 글자를 ‘H’로 사용하고 일본어에서도 ‘換[*ha*]'행은 ‘H’를 사용하지만 유일하게 ‘換[*hu*]'는 ‘H’가 아닌 ‘F’로 표기하며, 발음에 있어서 ‘F’는 ‘표’과 ‘ㅎ’의 중간 발음 나타난다. 예를 들어 ‘후쿠오카’의 경우 ‘Fukuoka’로 표기하고 발음한다. 따라서 작가의 이름 ‘환’을 ‘Fan’으로 표기한 것은 일본식 표기법을 따랐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일본식 표기 방식은 일본에서 생활했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작가 활동은 이름을 많이 노출 시키고 상대방이 잘 기억되고 ‘이우환’을 인지하기 쉬운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사인은 대부분 영문을 사용하고 철자는 ‘L, UFan’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한글 또는 한자로 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캔버스 뒷면에 작품과 작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할 때는 ‘Lee Ufan’ 또는 한자 ‘李禹煥’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조사 자료에 의하면 1964년 작 <점으로부터> 는 한국공보관화랑에 출품한 작품으로 왼쪽 아래에 한자로 ‘煥畵’라고 세로로 적고 그 아래에 인장을 찍은 경우는 이우환의 작품에서 잘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사례로 [그림 2]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9].



[그림 2] 왼쪽에 사인이 있는 작품

[Fig. 2] Signed on The Left

4. 이우환 사인의 특징

4.1 사인의 위치

미술 작품에 나타나는 사인은 작가의 의도에 따라 전혀 다른 방식과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 작품을 제작하는 당시의 상황이나 생각 또는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메시지를 그림의 표면 뒤로 숨기거나, 작품의 주제에 포함시켜 그리는 경우도 있다. 사인의 위치 또한 작품의 앞면이나 뒷면의 정해지지 않은 위치를 선택함으로써 후일 작품에 대한 연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작품 완성 후에 표기하는 이름과 날짜 같은 일반적인 사인의 표기 방식은 대부분 작품의 하단 부의 오른쪽 또는 왼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작품의 구도나 색상 그리고 표현된 주제의 특성을 화면에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사인 위치는 달라진다. 그림에 나타난 문자는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시선의 흐름을 방해하여 감상자가 간직하고 있는 고유한 문자습관에 따라 일정한 순서대로 이미지를 쫓아가야 한다고 느끼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방향에 대한 인식이다 [10].

이우환의 평면작품에서 나타나는 성향은 한국화나 문인화와 같이 여백이 많이 존재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여백 또는 공간에 대한 개념의 유사성이 크다. 일반적인 유화작품과는 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 캔버스와 안료에서 나타나는 재료의 차이도 있다. 작품의 제작방식에서 바탕화면을 칠해

메우지 않고 윤필, 즉 붓의 움직임이나 사용법을 이용해 그리고 난 나머지 여백은 비워두는 표현법에 의해 작품이 완성된다. 그러지는 면의 나머지는 여백으로 남는다는 것이다. 이우환은 작품에서 ‘여백’이나 ‘공간’은 비어있으되 차있고, 차있으되 비어있는 무한을 의미하는 중요한 의의를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그리는 부분과 남는 부분의 화면구성은 균형이 매우 중요해 사인의 위치도 다양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우환의 회화작품에 표기하는 사인의 위치는 의외로 고정적으로 정해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각 캔버스의 작품으로 봤을 때 화면 하단부의 오른쪽에 사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영문 이름의 배열은 언제나 수평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완성된 그림에서 여백이 어느 쪽이 많고 적은가는 관계없이 거의 고정적으로 오른쪽 하단에 사인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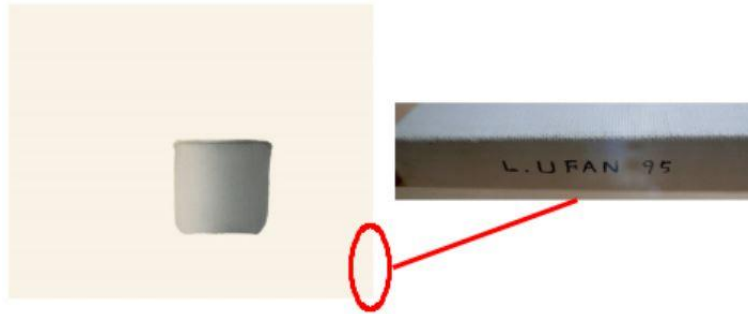
이번 조사를 위해 국공립미술관에 있는 평면작품 272점의 이미지와 한국시가감정협회에서 제공한 이미지 131점, 그 외에 온라인으로 확보된 이미지 123점을 더해 총526점의 이미지를 조사하였다. 조사한 작품으로는 점시리즈, 선시리즈, 바람시리즈, 대화시리즈, 조응시리즈, 드로잉, 판화, 테라코타 등이 포함되어있고, 1970년대부터 최근 작품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다양한 성향을 살펴보았다. 이미지 조사에 의한 결과, 캔버스의 왼쪽에 사인된 작품은 한 점도 보이지 않았다. 모두 우측하단에서 사인을 볼 수 있었으며, ‘다이얼로그(Dialogue)’ 시리즈의 경우는 그림이 있는 면이 아닌 캔버스의 측면에 사인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오른쪽 측면 아래 부분에 사인을 하고 있다.

4.2 오른쪽 하단의 위치

이우환 작가의 작품에서 사인 위치를 캔버스 하단 오른쪽으로 정한 것은 작품의 제작에 있어 매우 치밀하게 생각하는 작가의 성격을 볼 때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의 화면에서 여백이나 작품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왜 오른쪽인가에 대해서는 연구와 분석이 더 필요하지만 ‘오른쪽’과 ‘왼쪽’에 대한 일반적 개념과 미술사적 현상에서 나타나는 것들에서 추론해 볼 수도 있다.

오른쪽과 왼쪽에 대한 일상적인 생각과 문화는 동양 또는 서양의 문화적 관점에 따라 그 의미의 차이가 있겠지만, 미술사의 보편적 현상에서는 오른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의 문화가 큰 편이라고 보여 진다. 동양에서는 왼쪽을 길함과 명예로움을 상징하고 오른쪽을 흉함과 불길함과 막강함을 상징하는 문화가 있었다. 한편 서양에서는 이와 반대로 오른쪽 우월주의 성향의 문화를 볼 수 있다. 『The Sinister Side(불길한 쪽)』의 저자 제임스 홀(James Hall, 1963-)은 이 책에서 서양에서는 왼쪽이 오른쪽보다 불길하거나 사악하다고 느끼며, 그 느낌이 서양미술사를 관통해왔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 했다. 예술비평가이자 예술사가인 홀에 의하면, 오른쪽은 유한하고 남성적이며 밝음과 선함을 상징하는 반면 왼쪽은 혼란스럽다는 의미에서 무한하고 여성적이며 어둠과 악의 상징이라고 한다. 왼쪽과 오른쪽의 상징이 서구미술의 작품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열쇠라는

점을 논증하기도 하지만 이원론적 회기보다 상징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11]. 이우환의 작품에서 사인이 오른쪽에 위치한 것은 현실적인 인간의 문화에서 나타나는 텍스트의 인지 습성상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방향을 생각한다면 오른쪽 하단은 종결되는 지점이다. 마지막 마무리되는 지점으로 인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림 3]은 조사된 대표적인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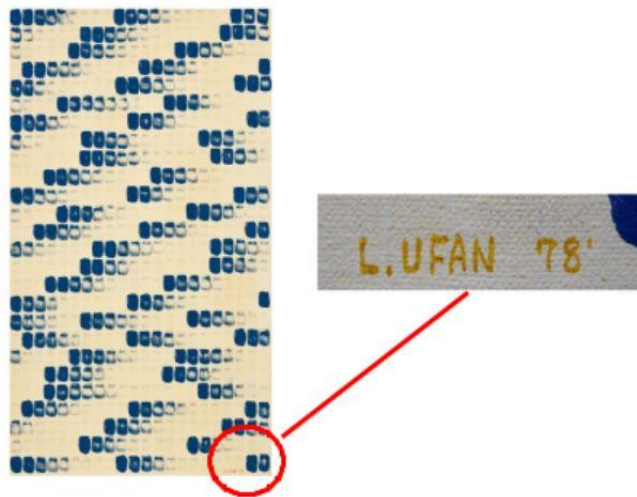
[그림 3] 작품의 측면에 사인된 경우
[Fig. 3] Signed on The Side

4.3 영문 구성 방식

이우환의 사인은 거의 영문으로 표기하고 'Lee' 대신 'L'만 사용하여 대부분의 작품에서 'L, UFan'으로 표기한다. '이' 'Lee'는 철자를 다 쓰기보다는 작품에 따라 이니셜(첫 글자)을 사용해 'L'만 표기하는 경우가 많고, 이름 '우환'은 'UFan'과 같이 첫 글자를 대문자로 시작하여 소문자를 섞어 쓰는 경우, 작품에 따라 'UFAN'과 같이 모두 대문자만 사용하는 경우, 'ufan'과 같이 소문자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작품의 성향에 따라 규정지어 놓고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본 작품에서 대문자만 사용하는 'UFAN'의 경우는 선이 직선으로 표현되는 선시리즈와 정갈한 점시리즈에서 많이 볼 수 있었다. 획을 수직과 수평으로 표현해 시각적으로 그림과 따로 놀지 않고 융화되는 방식을 구사하면서 눈에 들어나지 않으면서도 안정된 분위기로 완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편 소문자만 사용하는 'ufan'의 경우에는 바람시리즈와 수채 또는 드로잉 작품에서 많이 볼 수 있었다. 간혹 선시리즈 중에서 직선형이 아닌 유연하고 변형된 선 형태의 작품이나, 점시리즈에서 점의 흐름이 자유분방하게 구사된 작품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작품과 같은 분위기의 사인 방법을 구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림 4]와 같이 조사되었다.

그 외의 드로잉 작품이나 수채 같은 종이 위의 작품에서는 반드시 연필로 사인하고 서체는 필

기체에 가까운 곡선형의 인쇄체를 사용해 부드러운 분위기로 사인하고 있다. 테라코타의 작품에서는 흙 칼을 사용해 흙집을 내는 방식으로 흙의 질감과 흙 칼의 날카로움이 그대로 살아날 수 있게 한다. 흙 판에 흙집을 내는 것 같은 움직임으로 표현하고 있다. 나무 판에 칼이나 끌로 찍어내기 기법으로 제작된 작품의 경우에는 판 위에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 그리거나 쓰는 방식이 아닌 작품 제작방식과 동일한 나무를 날카로운 도구로 찍어내는 기법으로 표기한다. 경우에 따라 작품의 뒷면에 'Lee U fan'으로 풀 네임으로 사인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림 4] 점시리즈 작품의 경우

[Fig. 4] The A Case of The Point Series

4.4 필체와 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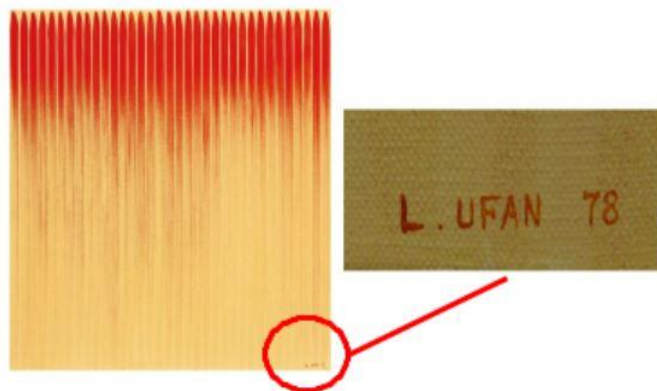
사인 위치는 고정되어 있으나 사인을 하는 방식과 사인의 색깔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붓의 움직임이 역동적인 바람시리즈와 곡선 성향이 강한 선시리즈의 경우에 사인은 소문자로 필기체에 가까운 표기를 통해 작품과 사인의 분위기를 같은 맥락으로 연출하고 있다.

필체에서는 뇌의 지문이라고 할 만큼 그 사람에 대한 지적인 수준, 인격의 수준, 예술성, 고집 등과 우울증과 같은 질병도 판단할 수 있다고 할 만큼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필적은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측면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었던 만큼 작품의 사인에서 나타나는 필적도 작품의 진위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최근에는 필적 및 서명의 자동분석 시스템 On-line분석 시스템과 Off-line분석시스템의 2가지 종류의 분석을 통해 개인의 고유한 개성을 판별하고 있다 [12].

이우환작가의 경우 회화작품에 사인을 하기 위한 붓은 별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의 점,

선, 바람, 조응, 대화 등 시리즈의 회화작품은 대부분 큰 붓 또는 평붓을 사용하고 있다. 캔버스 화면을 칠해서 메우는 방식이 아니고 화면에 알맞은 크기의 점이나 선에 따라 붓을 선택해 한 번에 그리는 운필법으로 작품을 완성해 낸다. 큰 붓으로 작은 사인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사인에서 나타나는 선이나 획의 구부러짐과 가끔 비 의도적인 구부러짐 현상으로 보아 사인을 위한 붓은 한국화에서 사용하는 끝이 뾰족한 붓과 아크릴이나 유화에 사용되는 작고 끝이 둥근 형태 등 몇 종류를 사용해 사인했을 것이라 추측된다.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사인의 색이다. 회화 작품은 거의 단색조로 완성 되는데 작품에 쓰인 색과 사인의 색이 동일한 경우는 많지 않다. 블루계열 또는 블랙계열의 작품이 많은 반면 사인은 보색인 갈색 계열의 색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때 색은 원색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색과 혼합해서 작품과 어울리는 색을 만들어 사용하며, 색의 농도 또한 작품의 채도와 어울리게 유지한다.[그림 5]는 그 예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붉은 계열의 선시리즈에서 비슷한 색을 사용하는 경우를 비추어 보면 보색을 사용해 사인이 눈에 띄게 표시하기보다 작품의 전체와 어우러지는 색을 사용했음을 많은 예로 알 수 있다. 간혹 작품과 같은 계열의 사인을 한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원색을 사용하지 않고 채도를 낮추거나 농도를 연하게 하여 작품을 봤을 때 눈에 거슬리지 않는 크기와 채도로 사인한다.



[그림 5] 선시리즈의 경우

[Fig. 5] The A Case of The Line Series

5. 결론

창의성이란 인간정신의 특유한 것으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 내려는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의지를 의미한다, 이러한 창의성은 새로운 형태나 심미적인 아이디어를 예술적인 표현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이다 [13]. 이우환은 있는 그대로의 사물의 상호관계를 통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방식이며, 무와 유 또한 상호관계를 유지해야 만물이 존재한다는 개념의 작품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 이우환의 회화 작품을 통해 해석된 사인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이우환 작가의 사인은 약 50년간의 작가활동 시간 혹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작가들 중에는 일생의 작가 활동을 통해 많은 작품을 생산함과 동시에 기억에 담지 못하는 작품들도 있다. 그리고 이름이나 표기에 대해 변형되거나 심지어 도중에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의 피카소는 '파블로 루이스 피카소'의 영문표기 'P. R. Picasso'로 작품에 사인을 하기도 했는데, 큐비즘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니셜은 쓰지 않고 'Picasso'만 사용하기 시작했다. 변덕이 심한 피카소로 알려져 있지만 사인에 대한 이 변화의 흔적은 이후 미술사학자들을 혼란으로 빠트렸다 [14]. 이와는 상대적으로 이우환은 초기의 사인의 방식과 최근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사인의 방식을 비교하면 큰 변화가 없으나 작품의 시리즈에 따라 잘 어울리는 서체를 표기하는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둘째, 그의 작품 시리즈에서 나타나는 붓의 움직임과 성향에 따라 사인의 필체나 색감에서 아주 미세한 차이를 볼 수 있는데 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작품에 녹아드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작품에서 우측 하단에만 사인하는 집요함은 작품에 대한 그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이미 그 방식은 작가 속에 자연스럽게 내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인 색의 선택이나 농도의 조절이나 영문자의 표기방식은 작품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철저하게 작품과 융화되는 방식을 구사한다.

셋째는 아주 기본에 충실한 표기법을 구사한다는 것이다. 영문으로 표기되는 이우환의 사인은 소문자를 사용할 경우와 대문자를 사용할 경우가 있으며, 풀 네임을 쓰지 않고 이니셜만을 사용할 경우의 차이가 있지만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서체를 사용해 가독성이 좋은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다. 사인에 대한 조형적 변형을 시도하거나 장식적 의미를 가미하기보다 문자의 원초적 기능을 기반으로 한 사인 방식을 이어가고 있다.

작가의 일대기에 대한 심층적인 개별적 연구와 사인의 자료를 아카이브 시스템화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거론한다는 것은 해묵은 사안이다. 사인분석 전문가인 존 카스타노(John Castagno, 1930-)는 10여권의 카탈로그를 제작할 만큼 사인에 대해 밀도 있는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책 한권에 1만개 이상의 작품 사인이 들어 있는데, 이런 사인에 대한 아카이브를 통해 많은 작가들이 이름과 기호에 대한 변형을 이어가고 있다. 사인이 시작된 이래 동시대 미술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다양한 사인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중요성을 재차 언급하고 있다.

References

- [1] J. Grondin, S. H. Choi, *The Prospect of Modern Analysis*, Dongnyok, 2017.
- [2] Y. M. Ki, "Art Products Where Signatures are Consumed: Beyond Gadgets and Kitsch -Focused on Keith Haring's 'Pop Shop'-",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December 2014, vol. 20, no. 4, pp. 37-49.
- [3] W. J. Kim, J. W. Lee, "A Study on becoming omnivorous for the cultural consumption in the public through the online group-buying platform for art", *Journal of Digital Art Engineering & Multimedia*, September 2020, vol. 7, no. 3, pp. 207-219, doi: 10.29056/jdaem.2020.09.03.
- [4] H. I. Son, "Handwriting and Signature Seal of Painting Title, by Kim Hong-do, styled Danwon PDF icon", *Journal of Korean Thought and Culture*, December 2019, no. 100, pp. 327-380.
- [5] J. H. Kim, "The Discourse on the Identity of Korean Contemporary Art with respect to the Concepts 'Globalization' and 'Deterritorialization' of", *Journal of The Eastern Art*, February 2020, no. 46, pp. 31-56.
- [6] K. T. Park, "Lee Ufan as a Thinker of Mono and the Criticism on Modernity PDF icon" *Journal of Japanese Thought*, December 2019, no. 37, pp. 217-242. doi: 10.30615/kajt.2019.37.9.
- [7] S. J. Nam, "Aesthetic Consciousness of Coexistence : Lee U Fan's Artworks", *Journal of Oriental Art*, August 2015, no. 28, pp. 29-50.
- [8] Y. N. Kim, "Constructing Transnational Identities: Paik Nam June and Lee Ufan", *Journal of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Art History*, December 2007, no. 18, pp. 209-226.
- [9] A. Tani, "Work, Intermediaries to Open Place", *Journal of MIZUE*, December 1980, no. 909, pp. 3-67.
- [10] Y. J. Kang, "Some Theoretical Problems the Signatures of Paul Klee",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Western Art History*, December 1996, No. 8, pp. 185-207.
- [11] J. Hall, "The Sinister Side", *Puriwaipari*, 2012.
- [12] S. H. Kim, J. G. Ha, G. Y. Kim, H. I. Choi, "The Off-line Verification System of Signature of Handwrite", 2007 HCI Conference, February 5-8, 2007, Pyeongchang, Korea, pp. 189-193.
- [13] K. S. Jang, "A study on the creative expression method of surrealism -Focusing on Magritte's work-", *Journal of Digital Art Engineering & Multimedia*, December 2020, vol. 7, no. 4, pp. 359-372, doi: 10.29056/jdaem.2020.12.06.
- [14] A. Velimirovic, "The (Un) Importance of Artist Signatures", www.widewalls.ch, <https://www.widewalls.ch/art-ist-signatures>, (accessed December 20, 2020).